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제주연구원 임직원 공무국외연수 -

2023. 5.

목 차

I. 출장개요	3
II. 주요일정	4
III. 방문국가 주요 현황	5
IV. 방문기관 및 시찰 주요 내용	7
V. 북해도 산업구조와 제주에서의 시사점	21
VI. 북해도 관광산업과 제주에서의 시사점	29
VII. 종합의견	37

제주연구원 임직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해외 선진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임원(비상임 이사)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활용하여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I. 출장개요

□ 기 간 : 2023년 4월 20일(목) ~ 23일(일) (3박 4일)

□ 대상국가 : 일본 북해도(홋카이도)

- 삿포로, 오타루, 도야, 노보리베츠

□ 출장자 : 제주연구원 임직원 10명

※ 출장자 명단

연 번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제주연구원 임원 (선임직 이사)	전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	
2	〃	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무이사)	변대근	
3	〃	전 제주은행장	서현주	
4	〃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	이남호	
5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동철	
6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7	제주연구원 직원	연구부원장 (선임연구위원)	박원배	
8	〃	부연구위원	강영준	
9	〃	부연구위원	고선영	
10	〃	총무팀장 (행정직3급)	서정임	

II. 주요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비고
4.20.(목)	제주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출발→서울(김포) 도착 : 7:00 ~ 8:10 • 인천 출발→홋카이도(삿포르) 도착 : 12:20 ~ 15:00 	
	인천	홋카이도 (삿포르)		
4.21.(금)	삿포르, 오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 국립 종합대학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홋카이도 대학교 현무암 교수) - 대학 내 연구센터 및 시설 탐방 • 오도리공원 일대 눈 축제현장 시찰 • 오타루 시내 도시재생시설 시찰 ※일정 조정 : 홋카이도 국립 종합대학 방문 및 간담회 일정으로 당일 오전 삿포르 시청 방문 사전 취소	
4.22.(토)	도야, 노보리베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 세계 지오파크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야호, 쇼와신산 탐방 • 다테지다이무라 테마파크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시대의 문화를 재현한 역사테마파크 • 홋카이도 유산 탐방(자연환경 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일정 조정 : 아이누 민족박물관에서 노보리베츠에 있는 다테지다이무라 테마파크로 방문지 변경 (이동시간 최소화)	
4.23.(일)	홋카이도 (삿포르)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삿포르) 출발 → 인천 도착 : 11:30 ~ 14:45 • 서울(김포) 출발 → 제주 도착 : 18:35 ~ 19:45 	이동
	서울	제주		

Ⅲ. 방문국가 주요 현황

□ 일본¹⁾

- 국명 : 일본국(日本, Japan)
- 수도 : 도쿄(東京, Tokyo)
- 인구 : 1억 2568만명 (2021, World Bank)
- 면적 : 37만 8000km² (한반도의 약 1.7배)
-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 위치: 동북아시아
-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47개)
- GDP : 4조 9409억\$ (2021, World Bank)
- 1인당GDP : 3만 9312\$ (2021, World Bank)
- 경제성장률 : 1.7% (2021, World Bank)
- 화폐단위 : 엔(円・yen)

<일본 지도>



1) 현황 : 외교부(www.mofa.go.kr) 국가/지역 검색에서 일부 발췌, 지도 : 나무위키

□ 북해도(홋카이도)²⁾

- 위치 : 북해도(홋카이도)는 일본의 최북단(북위 41도~45도 사이 위치)
- 면적 : 83,456km²(일본 총면적의 22.9%, 남한 면적의 약 80%, 일본에서 혼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섬)
- 인구 : 약 520만명(일본 전체 인구의 약 4%)
 - 중심도시 삿포로의 인구가 약 196만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고, 나머지 도시의 인구밀도는 매우 낮음

<북해도 지도>



2) 현황 및 지도 : <http://www.uu-hokkaido.kr/nipponrentacar.shtml>

IV. 방문기관 및 시찰 주요 내용

□ 북해도(홋카이도) 대학교³⁾

○ 일시 : 2023. 4. 21(금) 오전

○ 장소 : 북해도(홋카이도) 대학교 삿포로 캠퍼스

- 홋카이도 대학은 대학원에 중점을 둔 핵심 대학으로, 그 기원은 1876년 일본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 삿포로 농업 대학으로 설립됨. “프론티어 정신“, “국제적 마인드 함양“, “전인적 교육“, “실천적 학습 강조“라는 교육과 연구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음.

*스즈키 아키라(노벨화학상) 등 노벨상 수상자 3명 배출

- 캠퍼스는 삿포로와 하코다테 두 곳에 있음. 약 180헥타르(남북 2km, 동서 1.6km)의 삿포로 캠퍼스가 인구 12만 명의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드물며, 캠퍼스 내 농장, 녹지 공간, 숲, 개울 및 통로와 같은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후루카와강당
Furukawa esikarun uweyayhanokka cisie



1909년 후루카와 재벌의 기부로 건설되었습니다. 당시는 입학교실이었기 때문에 원형 창문의 틀이 '木' (수목 림)자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전후, 교양부 본관이었고, 2019년 3월까지 문학연구과 연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교 삿포로 캠퍼스 주요시설]

종합박물관
rupne ikar oma kenru



1999년 4월, 대학 전체의 학술자료를 집약하고 그 정보를 학내외로 발신·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다분야의 학술 표본과 학부 등에서 아픈 교육연구 성과를 공개·전시하고 있습니다. 뮤지엄샵과 카페를 병설. 건물은 구 홋카이도제국대학 어학부 본관으로 1929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증양간디
noski un mun us i
사쿠슈코토니강
sa kus kotoni



① 약 12,000 m의 녹지 도요하라강 선상지 꼭대기에 위치하며 사쿠슈코토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 하천). 쇼와시대 초기까지 이곳으로 연어가 회귀하였습니다.
② 창립 1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래전 학내를 흐르고 있었던 사쿠슈코토니강을 2003년 12월에 복원. 아이누어로 '사쿠슈'는 '강변 쪽을 지나가다'라는 뜻. '코토니'는 '울퉁 패인 곳'라는 뜻. 사쿠슈코토니강은 '울퉁 패인 곳을 지나가는 강'을 도요하라강에 가장 가까운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클라크 동상
Clark esikarun kani noka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삿포로농학교 초대 교장. "Lofty ambition(고매한 큰 뜻)", "Be ambitious(큰 뜻을 품어라)"와 같은 명언은 홋카이도대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1926년, 창립 50주년 사업으로서 건립되었습니다.(현재의 동상은 전후 재건).

3) 참고 : <https://www.hokudai.ac.jp/>

○ 국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현무암 교수와의 간담회

- 일시 : 2023. 4. 21(금) 오전 10:00~

- 장소 : 북해도(홋카이도) 대학교 국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참석 : 현무암 교수, 제주연구원 임직원 10명

☞ 현무암 교수 : 홋카이도대학교 국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 : 미디어와 문화)

구분	주요 내용
현무암 교수	<p>▶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와의 세미나(2023.8월 예정) 추진 배경 설명</p> <p>일제강점기부터 제주-오사카 직항을 이용해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음. 해방 이후 제주 인구가 20만명,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은 5만명 정도였으며, 오사카 이쿠노구의 이카이노 지역(현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제주사람이 거주하였음. 해방 후 오사카에서 제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나 일본에 정착하는 제주인도 많았음. 4.3사건 당시 제주도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고, 경제가 어려워 일본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을 의지해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음. 1960년대, 70년대부터 성묘, 별초 등으로 왕래가 활성화됐고, 제주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보내거나 감귤 묘목을 보내면서 제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제주에 공덕비가 많은데 그만큼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이 고향에 대한 공헌활동이 많이 해왔음.</p> <p>현재 재일동포들이 고령화되고 세대가 2세, 3세로 접어들면서 1세대들은 고향에 묻히길 원하는데 성묘, 별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세대들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이동하면서 성묘를 할 수 있지만, 2세, 3세대들은 부모의 성묘를 하기 어렵고, 재산·상속 문제도 있어 재일동포 가족간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재일동포들이 그동안 제주에 해온 공헌활동이 있으므로 2세, 3세대들이 제주를 방문하거나 성묘를 할 때 제주도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에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제주에서 개최하고자 함.</p> <p>*8월 세미나 개최 시 발표자 : 3명(예정) - 북해도 대학 현무암 교수, 오사카 국립대학 교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재일제주인 관련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한 제언 등</p>

구분	주요 내용
질 의	오사카 지역 코리아타운 인근이 오사카의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덜 되었다고 하는데 재일동포가 많아 지방정부의 지원이 적은것인지?
답 변 (현무암 교수)	이민자가 많아지면 현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자 중심의 마을이 형성됨.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이카이노 지역에 있는 미유키모리 소학교가 2년 전 인구 감소로 폐교가 되었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NGO가 소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 활동도 하고 있음.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된 곳은 아니며,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살고 공존하는 곳으로 재외동포가 많이 살아서 개발이 안 된 것은 아님.
질 의	일본은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재일동포 중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 차별이 있는지?
답 변 (현무암 교수)	외국인에게 복지제도를 적용한 것은 1979년 인권조약 가입 이후임. 70년대까지는 일본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납부 금액이 없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1990년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재일동포 인권단체 등에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차원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질 의	재일동포 2세대보다 3세대가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답 변 (현무암 교수)	1세들의 고향에 대한 환상이나 관심, 이에 반발하여 고향과 거리를 두는 2세, 자신의 뿌리나 출신에 관심을 갖는 3세에 대한 사항은 이론적으로 분석되고 있음.
질 의	재일제주인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을 고민해야 함. 135만 제주도민 중 재외도민은 65만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체가 없어 조사가 필요함. 기초조사, 재외도민 연구가 추진 되려면 도정 예산이 지원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8월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함. 일본 전체가 아니더라도 오사카 지역만이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 변 (현무암 교수)	올해 4월 29일,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이 개관함. 연구자들이 자료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나 조사가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세대가 바뀌면서 고향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추세라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의미가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함. 2세, 3세들이 제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와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함.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자료관 - 제주대 재일제주인 센터 업무협약 체결(2023.4.29.) : 학술연구와 전시, 홍보 등 공동 추진

구분	주 요 내 용
질 의	<p>제주에서 해외로 나간 청년세대(3세대)를 제주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축하면 제주도가 뿌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청년세대(3세대)의 비즈니스와도 연결될 수 있고 제주도도 글로벌화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 내 전담조직 필요</p>
답 변 (현무암 교수)	<p>일본 오사카 내 제주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왕래가 있지만 다른지역은 거의 없음. 한국에 있는 재일동포 관련 단체나 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연결이 될 수 있음.</p>
질 의	<p>홋카이도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p>
답 변 (현무암 교수)	<p>홋카이도 대학은 삿포로 농학교로 도쿄대학보다 먼저 대학기관으로 인정되었고 농학교로 설립되서 캠퍼스 내 농장, 축사가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임. 홋카이도 지역 개척 시 교육기간이 필요해서 1876년 홋카이도 대학이 설립되었고 교외 지역이 아닌 도시 중심지인 역 근처에 위치한 방대한 규모의 대학으로 학생수는 학부생 1만명 정도임. 대학원생, 교직원 포함시 2만명이 넘음. *노벨화학상 수상자 : 스즈키 아키라</p>
질 의	<p>홋카이도는 내국인들도 선호하는 관광지라고 들었음. 홋카이도 관광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은 어떤지?</p>
답 변 (현무암 교수)	<p>일본 관광지는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지역을 선호함.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은 김포-제주 노선이지만 그 이전에는 삿포로-도쿄 노선이었을 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임. 신칸센을 하코다테까지 연장했고 향후 삿포로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음. 최근 관광 문제가 되는 것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관광객들로 인한 민폐가 발생하는데 홋카이도는 지역이 넓어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없어 관광객에 대한 불편한 시각은 많지 않음 편임. 오히려 주 수입원이 관광산업이므로 관광객의 소비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음.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홋카이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위기감을 갖기도 함.</p>
질 의	<p>홋카이도나 일본내 지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홋카이도의 경우, 제주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오염수의 방류는 쿠루시오 해류를 타고 홋카이도의 수산업에도 피해를 주는데, 어민들의 반응은 어떤지?</p>
답 변 (현무암 교수)	<p>일본 내부와 홋카이도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음. 원전 방류수가 환경적으로 잘 처리되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임.</p>
질 의	<p>홋카이도 역시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음.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기후변화로 홋카이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난류성 어종의 유입,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작물의 변화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학계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p>

구분	주 요 내 용
답 변 (현무암 교수)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컨퍼런스 등을 간간히 개최하고 있음. 기후 환경이 중요한 문제이고, 홋카이도 대학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음.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개최 : 2023.4.15.~4.16, 일본 삿포로
질 의	홋카이도의 제조업 비중은?
답 변 (현무암 교수)	20세기 초기에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제조업이 비중이 많지 않음.
질 의	삿포로로 이주가 증가하는데 이주대상은?
답 변 (현무암 교수)	삿포로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인구증가는 홋카이도 전체가 아닌 중심지인 삿포로만 해당됨. 삿포로 이외 홋카이도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 이주대상은 주로 젊은층임.
질 의	홋카이도는 도시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과소지역이 발생하는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답 변 (현무암 교수)	일본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삿포로의 경우는 홋카이도 내·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삿포로로 인구가 유입되면 다른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이동수단이 없으므로 삿포로 이외 지역의 이동수단 확대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생각해볼 수 있음.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함.
질 의	일본의 노년학, 심리학 등 의학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간호학과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답 변 (현무암 교수)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설치되지만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 내에 간호학과가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홋카이도 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내에 간호학과가 설치됨. 대부분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에서 실무 중심의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한국의 간호학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간호대학 : 4년제(이론중심), 간호전문대학 : 3년제(실습중심)
질 의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답 변 (현무암 교수)	홋카이도 대학은 국제성을 강조하고 있어 1학년은 외국어를 필수 수강해야 함. 2000년대 초에는 한류 붐으로 한국어 수강자가 많았고 그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한국어를 추첨해서 수강해야 할 정도로 한국어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음.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이지고 있음. 2000년대 초에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K-POP,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북해도(홋카이도) 대학교 방문]

□ 오도리 공원 일대 눈 축제현장 시찰⁴⁾

- 일시 : 2023. 4. 21(금) 오후
- 장소 :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니시 1~12초메

[오도리 공원]

- 삿포로 중심부인 삿포로역 근처에 위치한 도심 속 휴식처로 중앙구 1초메부터 12초메까지 약 1.5km 거리의 공원. 공원에는 92종의 약 4,700그루 정도의 나무 (라일락, 느릅나무등)가 심겨져 있고 다양한 종류의 꽃들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눈축제, 라일락 축제, 요사코이 소란 축제, 여름 축제, 어텀 페스트,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오도리 공원 근처에서는

4) 참고 : <https://odori-park.jp/kr/>

삿포로 TV탑, 삿포로시 자료관(무료입장), 삿포로 시계탑, 삿포로 지하상가(오도리~스스키노를 지하로 연결하는 쇼핑몰),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현재 공사로 휴관중이며, 2025.3월까지 공사 예정) 등을 볼 수 있음.

- 삿포로 TV탑 : 1957년에 건설되었고 높이 147.2m. 삿포로의 랜드마크로 지상 90m 전망대에서 오도리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음. 밤에는 조명을 비추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
- 삿포로 눈축제 : 매년 2월 오도리 행사장과 스스키노 행사장에서 개최되고 있음. 오도리공원 1초메와 12초메 사이에 걸쳐 눈과 얼음으로 만든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전시되며, 일몰부터 22시까지 야간조명을 비추어 멋진 광경을 연출함.



[삿포로 오도리공원 일대]



[삿포로 오도리공원 일대]



[삿포로 시계탑]



[오도리공원 관광안내소 내부]

□ 오타루 시내 도새재생시설 시찰⁵⁾

○ 일시 : 2023. 4. 21(금) 오후

○ 장소 : 오타루 운하, 석조창고 등 오타루 시내 일대

[오타루 운하]

- 오타루 시가지를 가로질러 근해로 1140m의 길이로 이어지는 운하로 1923년에 완성되었으며, 과거 오타루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양이 많아지자 선박이 근해에서 창고 근처까지 직접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건설한 수로임. 당시 운하로 들어오는 화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쇠퇴하였으나 1980년대에 운하 재생 운동이 일어났고 운하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지화한 대표적인 도새재생 사례로 알려지고 있음. 운하 주변의 창고들을 개조하여 레스토랑, 공예관 등이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에 설치된 가스등이 켜지면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음.
- 운하 주변에 있는 석조창고들은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내부를 개조하여 식당, 쇼핑몰, 결혼식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1930년대의 일본 식당거리를 컨셉으로한 데누키코지 골목과 사카이마치도리 상점가를 따라 식당, 기념품샵, 유리공방 등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으며, 옛날 오타루항에 있던 화재 감시 망루를 재현한 히노미야구라(화재 감시대) 전망대와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오르골당, 증기시계탑 등은 오타루의 유명한 관광명소임.
- 운하와 역사적 건축물, 이국적인 거리의 모습이 매력으로 자리잡아 많은 관광객들이 오타루를 방문하고 있음.
- ▶ 오타루 운하의 옛 모습을 둘러볼 수 있는 기타운하 주변 코스 : 오타루시 종합 박물관(본관), 린유 아침시장, 구 일본우선 오타루지점, 운하공원, 구 시부사와 창고, 훗카이 제관 오타루 공장, 다니카주조 본점

5) 참고 : https://www.city.otaru.lg.jp/docs/2020120700619/file_contents/kr.pdf, <https://ko.wikipedia.org/wiki/>

- ▶ 역사적 건축물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타노 월가 코스 : 오타루역, 구 국철 데미야선, 오타루 문학관·미술관, 일본은행 구 오타루지점(금융자료관), 구 홋카이도은행 본점(오타루바인), 구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 오타루지점(호텔 바이브런트 오타루), 구 미쓰비시은행 오타루지점, 구 나토리 다카사부로 상점(다이쇼 유리 본점), 운하 플라자



[오타루 운하]



[오타루 오르골당]



[오타루운하 석조창고]



[오타루 거리 데누키코지]



[오타루시 종합박물관]



[구 홋카이도은행 본점]

□ 홋카이도 세계 지오파크 탐방⁶⁾

○ 일시 : 2023. 4. 22(토) 오전

○ 장소 : 도야호, 쇼와신산

[도야호(토야코)]

-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호수. 시코츠 토야 국립공원의 일부. 2008년 G8 정상 회담이 열렸을 정도로 경관이 유명하며, 백두산 천지와 같은 칼데라 호수라서 근처에는 온천지대가 많이 있음. 이름의 유래는 아이누어로 “호숫가“를 뜻하는 “토야(トヤ)“임. 이 호수 주위의 산들은 화산들이 대부분이며, 7천년 전부터 에도시대 전까지는 분화가 없었으나 1663년 이후부터는 화산 활동이 다시 시작되어 20세기에만 해도 1910년, 1944년~1945년, 1977년~1978년에도 분화가 있었으며, 2000년에도 분화가 있었음.
- ▶ 시코츠 토야 국립공원 : 일본 홋카이도의 국립공원. 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칼데라 지형인 시코츠호와 토야호 두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총 면적은 약 10만 ha에 달하며, 2009년 토야호 일대가 일본 최초의 세계 지오파크로 등록됨.

[쇼와신산]

- 쇼와신산은 일본 홋카이도에 우스군에 있는 종상 화산임. 현재도 정상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는 활화산이고 해발고도가 조금 낮은 편임. 정상에는 나무가 없지만 아래에는 있으며, 현재 일본의 특별 명승이자 천연기념물이다. 보리밭 (1943 ~ 1945년)이었던 평지 지역에서 분화하여 산이 되었으며 쇼와 시대에 새로 생긴 산이라는 뜻으로 ‘쇼와신산(昭和新山)’ 이란 이름이 붙었음.

※미마츠 마사오 : 지진의 발생부터 분화, 그리고 활동이 멈출 때까지를 독학 관측 방법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남김. 그 공적을 높이 사서 쇼와신산 기슭에 미마츠 마사오의 동상과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기념관에는 미마츠 다이어그램을 비롯하여 자료, 관측기기, 사진 등이 전시

6)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 <https://namu.wiki>



[도야호 전망대]



[요테이산] *홋카이도의 후지산



[쇼와신산]



[쇼와신산 미마츠 마사오 동상]

□ 에도시대 역사테마파크 방문⁷⁾

○ 일시 : 2023. 4. 22(토) 오후

○ 장소 : 노보리베츠 다테지다이무라 테마파크

[다테지다이무라 테마파크]

- 에도시대의 거리 풍경 및 문화를 재현한 컬처 파크, 사무라이와 닌자의 시대를 재현한 역사 테마파크(민속촌)
- 지다이무라는 다테 마사무네가 통치했던 센다이번 관련 건물들을 다수 재현하였음. 일본 국내에서 온천지로 유명한 노보리베츠는 다테 마사무네의 오른팔인 가타쿠라 고주로의 후예가 메이지 시대에 개척한 땅임. 노보리베츠다테지다이무라는 그 개척 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음.



7) 참고 : <https://edo-trip.jp/ko/information/>

□ 홋카이도 유산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등 탐방⁸⁾

○ 일시 : 2023. 4. 22(토) 오후

○ 장소 :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주변 일대

[노보리베츠 지옥계곡(지고쿠다니)]

- 노보리베츠는 홋카이도 동남부 닛탄 지역에 위치한 해안도시. 내륙에 위치한 산으로 히요리야마가 활화산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천이 있으며, 그 일대가 시코츠토야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국립공원 내에 있는 지옥계곡, 오유누마, 천연 족욕탕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 되어 있음. 산책로 중간에 노보리베츠 온천 관련 퀴즈판이 있어 산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문제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음.
- 노보리베츠시는 2023년 3월,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노보리베츠 온천에 저속 전기 버스(그린 슬로우 모빌리티)의 운행을 시작함.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는 전기의 힘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탑승 구역에서 손을 들면 버스가 정차하고, 기사에게 하차장소를 말하면 자유롭게 하차가 가능함.

*운행구역 : 노보리베츠 온천 터미널- 고쿠라쿠도리 상점가 - 지옥계곡(지고쿠다니) - 천연 족욕탕



- 지옥계곡(지고쿠다니)은 히요리산의 분화 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노보리베츠의 온천 대부분은 지옥계곡에서 솟아나고 있음. 악마가 사는 지옥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지옥계곡이란 이름이 붙여짐. 하루에 만톤 정도의 다양한 온천이 솟아나고 있으며 주변의 온천호텔 등에 공급되고 있음. 지옥계곡 산책로에 철천지(철분이 함유된 샘)로 불리는 80도가 넘는 온천을 직접 볼 수 있음.

8) 참고 : <https://namu.wiki>, <https://noboribetsu-spa.jp/>, <https://oni-slo.com/>

- 오유누마는 히요리산의 증기 폭발로 형성된 폭발성 분화구의 유적으로 1km의 높으로 되어 있음. 약 130° C의 유황 온천이 분출되고 있으며 표면 온도는 약 40° C ~ 50° C임. 오유누마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으로 천연 족욕을 할 수 있는 오유누마 강 천연 족욕탕이 산책로에 마련되어 있음.(무료)



[지옥계곡 입구]



[지옥계곡]



[오유누마]



[오유누마]



[산책로 퀴즈]



천연 족욕탕

V. 북해도 산업구조와 제주에서의 시사점

1. 북해도 경제

□ 일반 현황

- 지역내총생산(GRDP) : 187,708백만 달러(한화 약 250조원, 2017년 기준)
 - 일본내 47개 지역 중 9위에 해당함(2005년 6위, 2014년 8위)
 - 북해도의 GRDP는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임
 - (※ 북해도의 인구는 520만명, 덴마크는 540만명으로 인구 규모도 유사함)

List of Japanese prefectures by GDP in 2017 (in millions)^[3]

Prefecture	Region	Rank	2017 GDP (in millions of JP¥)	2017 GDP (in millions of US\$ PPP)	Share of Japan GDP(%)
 Japan			339,674,508.10	2,744,146	100
 Tokyo	Kanto	1	106,238,000	1,026,340	37.401
 Aichi	Chubu	2	40,299,800	389,325	
 Osaka	Kansai	3	40,070,000	387,105	
 Kanagawa	Kanto	4	35,589,800	343,824	
 Saitama	Kanto	5	23,431,100	226,361	
 Hyogo	Kansai	6	21,328,800	206,052	
 Chiba	Kanto	7	21,106,900	203,908	
 Fukuoka	Kyushu	8	19,679,200	190,116	
 Hokkaido	Hokkaido	9	19,430,100	187,708	
 Shizuoka	Chubu	10	17,277,500	166,913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Japanese_prefectures_by_GDP

- 산업구조 : 1차 산업 4%, 2차 산업 26%, 3차 산업 70%
 - 1차 산업 : 농업, 수산업, 낙농업
 - 2차 산업 :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 3차 산업 : 관광산업

□ 1차 산업⁹⁾

○ 농업

- 규모 : 농가호수 59,000호, 농업인구 191만명(1 호당 경작면적 19헥타르)
- 전업농 비율은 50%(일본 전국 기준 20%)이고, 대부분 기계화
- 북해도 식량 자급률은 200%를 상회하며, 생산된 농산물은 일본 본토로 수출
- 주요 농산품은 쌀, 보리, 옥수수, 감자, 양파, 비트, 콩 아스파라거스, 소고기, 우유 등
- 농업 총생산액은 약 1조엔(2017년 GRDP 19.4조엔의 약 5.1% 수준)

○ 수산업

- 일본 어업생산량의 1/4을 생산하며, 북해도의 기간산업
- 규모 : 어항 수 285개, 해안선 3,007km
- 어종 : 다시마, 가리비, 연어·송어, 명태, 임연수, 오징어 등

○ 낙농업(소)

- 도입 : 1876년 마코마나이 서양식 목장 81헥타르
- 규모 : 40종의 브랜드 소 육성, 전국 사육량의 45% 점유(1호당 육우 80마리, 젖소 159마리 사육)
- 생산 : 원유 생산량 연 평균 360만톤(전국 생산량의 43%)으로 250만톤은 유제품 가공 출하

○ 낙농업(말)

- 북해도는 일본 경주마의 산지
- 매년 7~8천마리 생산(일본전국의 90%), 히다카 지방은 명마 생산지로 유명
- 말기름은 북해도의 특산품

○ 임업

- 규모 : 일본 전국 산림 면적의 22%(이 중 65%가 원시림)
- 산림분포 : 활엽수로 이루어진 천엽림, 삼나무·편백나무를 식수한 인공림(북해도 산림 전체의 40%), 산촌 지역의 자연림
- 벌채 주기는 50~60년으로, 연간 벌채량과 성장량을 동일하게 유지

9) 출처 : 홋카이도소개(7) 경제&산업, <https://m.blog.naver.com/kouran72/220916444709> (검색일 : 2023.05.11.)

□ 2·3차 산업¹⁰⁾

○ 광산업

- 메이지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고도 성장 후 쇠퇴
- 주요탄광 : 이시카리 탄전, 구시로 탄전(※ 구시로 탄광만이 현재 일본전체에서 유일하게 채굴 중)
- 금광 : 고모마이 광산(동양 제일의 금산, 1973년 자원고갈로 폐광)

○ 제조업

- 주요 생산품 : 식료품(제조품 출하액의 30% 차지), 석유·석탄 제품, 철강 제품, 펄프·종이 제품 등
- 공업 시초 : 1876년 개척사 맥주 양조장, 1896년 하코다테 선거 주식회사 조선, 1901년 구시로의 마에다 제지, 1909년 무로란의 제철소
- 지역별 공업 분포 : 식품가공업 - 삿포르시 등 북해도 전역, 제지·펄프 - 시로시, 도마코마이시, 제철 - 무로란시, 석유화학 콤비나트 - 도마코마이시, 무로란시, 사료비료 콤비나트 - 구시로 시, 임공 공업도시 - 치토세시, 자동차 부품 제조 - 토마코마이시

○ 건설업

- 북해도의 기간산업 중 하나로, 공공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최근 공공사업의 대폭 감소로 인해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특구 : 삿포르벤처 창출특구(삿포르시), IT비즈니스특구(이와미자와시), 항만 물류특구(이시카리만신항), 기업 입지 촉구 특구(난포르정), 마린 프론티어 과학 기술 연구특구(하코다테시), 구시로 시라누카 차세대 에너지특구(고시로시, 시라누카정)

○ 관광산업

- 북해도의 기간산업
- 1972년 삿로포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개발청 주도의 공항, 철도 정비로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
- 여름에는 서늘한 기온으로 여름 피서지로 각광
- 겨울에는 눈꽃축제(세계 3대 축제) 개최, 스키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

10)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99%8B%EC%B9%B4%EC%9D%B4%EB%8F%84>

○ 정보산업

- 북해도는 한랭지로,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
- 이시카리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 2010년 사쿠라 인터넷의 데이터 센터 설치 발표
- ‘삿포르 벨리’ (2000년 전후)는 지역산업 육성의 성공사례
 - * 1976년 홋카이도대학 공학부 아오키 요시나오 교수가 설립한 마이크로 컴퓨터 연구회 창설 → 1980년대 부터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벤처회사 지속 창립 → 수지쓰, 일본 아이비엠, 일본 유니시스 등 대기업 지점 입점, 허드슨, 넷드래곤웹소프트 등의 게임회사 창립 등

2. 제주와의 비교 : 일반 현황

- 제주도는 1,846km²로 남한 면적의 약 1.83%에 해당하며, 북해도가 제주도 면적의 45.2배만큼 큼
- 제주도의 인구는 2020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약 67만명 수준이며, 북해도가 제주보다 인구가 약 7.7배만큼 많음
-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2021년 기준, 1차 산업 10.8%, 광·제조업 4.0%, 서비스업 77.1%의 분포를 보임. 북해도의 산업분포는 1차 산업 4%, 2차 산업 26%, 3차 산업 70%의 분포로, 관광산업이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추세 (국가통계포털)>

구분	단위	1986년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2021
지역내총생산(명목)	억원	9,175	24,625	46,787	61,027	86,999	122,070	187,193	200,485
합계	억원	8,489	22,822	43,631	55,069	80,140	113,646	170,909	184,215
농업, 임업 및 어업	%	39.1	33.4	24.8	15.6	14.9	16.1	10.7	10.8
광제조업	%	4.6	4.4	4.3	4.5	3.9	4.3	4.5	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	1.4	0.9	0.9	1.6	2.2	1.6	2.2	1.1
건설업	%	6.0	11.5	9.7	9.1	8.5	7.5	11.5	6.9
서비스업	%	48.9	49.7	60.2	69.1	70.4	70.5	71.1	77.1

주) 산업별 비중은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생산액을 100%로 기준하여 산출함

3. 제주와의 비교 : 1차 산업

- 농업 : 북해도는 고랭지 밭작물 중심의 농업생산이 주가 됨. 제주도는 감귤산업이 농업의 핵심산업이나, 양파, 마늘, 당근, 양배추, 무 등의 대표 밭작물 생산 지역이기도 함. 따라서 두 지역의 농업은 밭작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음. 단, 북해도는 강원도와 비슷한 고랭지 농업에 더 가까움
- 수산업 : 북해도와 제주도는 모두 섬지역으로 수산업이 중요한 지역의 기간 산업임. 북해도와 제주도는 모두 쿠루시오 해류를 공유하는 지역으로 풍부한 수산물자원이 분포함. 단, 북해도는 어패류와 명태, 연어 등 한류성 어종이 중심이 됨
- 낙농업 : 북해도와 제주도 모두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음. 북해도의 경우, 원유와 함께 유제품의 가공 생산이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함. 제주도의 낙농업은 전국 수준의 인지도나 생산량을 갖추지는 못함. 제주는 낙농업 외에도 양돈 산업이 발전하여 낙농업보다는 축산업이 더 발전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낙농업(말) : 북해도와 제주도는 모두 말산업이 유명함. 북해도의 경우, 경주마 생산지로 유명하고, 제주도는 전통 조랑말을 비롯하여 말 관련 산업이 더 발달되어 있음. 북해도와 제주도는 모두 말산업 발달지역으로, 마유크림(오일)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점에서 매우 유사함
- 임업 : 북해도는 제주의 45.2배의 면적을 갖추고, 2,000km 대의 산맥을 갖추고 있어 임업이 발달함. 제주도는 1,950km의 한라산이 있어서 고도에서는 비슷하지만, 산맥이나 임업이 발달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함. 오히려 고도에 따른 식생분포가 다양하고, 화산섬이라는 환경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북해도의 임업은 제주도보다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 종합 : 북해도와 제주도의 1차 산업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섬이라는 지역으로 인해, 밭작물과 수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말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짐. 그러나 북해도의 면적은 남한의 80% 수준으로, 넓은 면적에 따른 임업도 발달함

4. 제주와의 비교 : 2·3차 산업

- 광산업 : 북해도는 광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나, 1970년을 기점으로 쇠퇴함. 이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태백시와 비슷함. 제주도는 광산업 자체가 발달하지 않음
- 제조업 : 북해도는 1차 산업의 생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과 임업과 연계된 펄프·종이산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였고, 석유·석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2차 산업인 광산업 중심의 중공업도 발달함. 제주도의 경우, 1차 산업의 생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나, 임업 연관 산업이나 2차 중공업 산업이 발달된 점은 전혀 다름. 종이·펄프, 철강, 화학 등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에 분포한 산업들임. 제조업에서 북해도와 제주도에 차이 발생하는 점은, 북해도가 넓은 면적으로 인한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건설업 : 북해도는 공공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제주도 역시 공공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이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임. 제주도의 경우, 중국 자본에 의해 개발 붐이 한창이던 2016년에는 GRDP의 1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될 정도로 건설업의 중요성이 부각됨. 그러나 사드배치 이후, 중국자본 철수와 그동안 과잉되었던 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2017년부터 건설업은 지속적인 부진에 빠져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기 자체도 침체되는 영향을 받음. 북해도의 최근 건설업 침체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와 유사함. 섬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관광산업 : 제주도와 북해도는 각 국가에서 각광받는 섬관광지역으로 유명함. 제주도는 여름 휴양지와, 봄·가을 여행지로 선호되며, 상대적으로 겨울이 비수기에 속함. 북해도는 서늘한 기후로 여름 휴양지로 선호되며, 겨울철에도 동계스포츠(스키), 온천, 눈꽃축제 등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임. 특히, 북해도의 경우, 눈을 구경하지 못하는 동남아, 중국, 대만 등의 해외 관광 수요가 있고, 한국에서도 즐겨찾는 관광지임. 제주도 역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방문객이 많고,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북해도의 관광자원은 기후와 온천 등 자연환경이 중심이 됨. 제주도와 북해도 모두 내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힐링과 여유로움 삶을 찾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음

- 정보산업 : 북해도는 홋카이도 대학이라는 유명한 지역대학이 있고, 이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으로 IT 산업이 번창할 수 있었음. 4차 산업혁명 이후, 빅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서늘한 기후로 자연적인 냉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IT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제주도 역시 지역전략산업으로 IT산업을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해 옴. 다음-카카오의 본사 이전 등, 굴뚝 없는 정보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자 함. 북해도의 정보산업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태생하여, 닷컴 버블이 있던 2000년대 활성화 되었지만, 제주도의 정보산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산업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보산업을 유치, 육성 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차이가 있음

5. 제주와의 비교 : 종합

- 북해도와 제주도는 모두 각 국가에서 자국민에게 각광받는 최고의 섬 관광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음
- 그러나, 북해도는 제주도 면적의 45.2배로, 남한 면적의 80%를 차지하므로, 육지에서 분리된 경제적 자생능력이 없는 도서지역으로 분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북해도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합친 지역을 섬으로 분리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비유라 할 수 있음
- 자연환경 외에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제주와 달리, 북해도는 자체적으로 농업 및 공업을 모두 육성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지역이라는 특징,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음

- 제주도가 북해도를 롤모델로 지역산업 육성 방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 북해도는 제주도와 달리, 2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가 육성하려고 하는 미래산업과는 차이가 있음
- 북해도의 경우, 넓은 면적과 제주에 유사한 해안지역의 많은 바람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6. 시사점

- 제주도는 1차와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북해도의 경우,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이 이미 육성되어 있어, 제주가 목표하는 제조업 육성과는 차이가 있음
- 북해도의 제조업 중에서 제주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1차 산업의 생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임
- 일본의 경우, 식품산업에 대한 인허가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편이며, 대신 식품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준 이하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제주도 다양한 1차 산업의 생산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북해도와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 내에서 식품산업 인허가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음
- 북해도의 경우, 최근 2차 산업의 생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제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신산업이나 지식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음. 이에 대해서 선구자인 제주가 북해도와 협업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VI. 북해도 관광산업과 제주에서의 시사점

1. 홋카이도 관광개요

- 홋카이도의 관광은 2011년 이후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수입환경 정비와 관련된 전략거점으로 선정되면서 해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그 이전에는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홋카이도 개발청을 중심으로 신치토세 공항과 철도가 정비되어 관광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음.
- 여름철에는 아웃도어 레저, 드라이브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면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음.
- 그 결과, 삿포로 공항은 김포-제주 노선만큼이나 도쿄-삿포로 노선이 세계 최고수준에 달할 만큼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임.(홋카이도 대학 현무암 교수 인터뷰, 4/20)

2. 홋카이도 권역별 관광특성¹¹⁾



1) 삿포로

- 삿포로는 인구 189만명으로 일본에서도 다섯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로, 홋카이도의 정치·경제의 중심도시

11) 출처 : <https://kr.visit-hokkaido.jp/>

- 대도시이면서도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룬 경관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로 백화점, 지하철, 대형상업시설 등의 쇼핑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자연 관광 명소가 있음.



[삿포로시 시계탑]



[오도리 공원]



[홋카이도 구본청사]

2) 홋카이도 중앙지역(Douou)

- 홋카이도 제1의 도시 삿포로가 있는 중앙지역으로, 자동차 90분 거리에는 목가적인 구릉지대와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지역
- 대표적 관광지로 오타루 시와 노보리베츠 시가 있음.
- 오타루는 아이누어로 ‘모래사장 사이의 강’이라는 뜻으로 1923년 완성된 홋카이도 유일의 운하임. 완만하게 굽어있는 길이 1,140m의 운하 주변에는 산책로와 선적 수하물 임시보관장소로 이용되었던 석조창고가 늘어서 있음.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많고 야경이 아름다운 오타루 운하나 오타루 오르골당이 대표적 명소임.
- 노보리베츠는 아이누어로 ‘색이 짙은 강’을 뜻하는 곳으로 내륙에 위치한 산 중 히요리야마(日和山)가 활화산이기 때문에 주변에 온천이 있으며 그 일대가 시코츠토야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오타루 운하 크루즈]



[노보리베츠 지옥온천]

3) 홋카이도 남쪽 도남지역(Dounan)

- 홋카이도 남쪽에 위치한 도남지역은 역사와 자연이 있고 이국적인 도시 정경이 있는 지역임
- 대표 관광지역인 하코다테시는 홋카이도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일본에서 가장 매력있는 도시 순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하코다테 산에서 볼 수 있는 시 서쪽의 반도부분이 부채꼴로 펼쳐진 경관은 독특한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에 나가사키 야경과 함께 일본 3대 야경으로 알려져 있음



4) 홋카이도 동쪽 도동지역(Doutou)

- 도동지역은 아직까지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는 지역임
- 최근 세계자연유산이 등록된 시래도코가 있으며 신비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가장 홋카이도다운 웅대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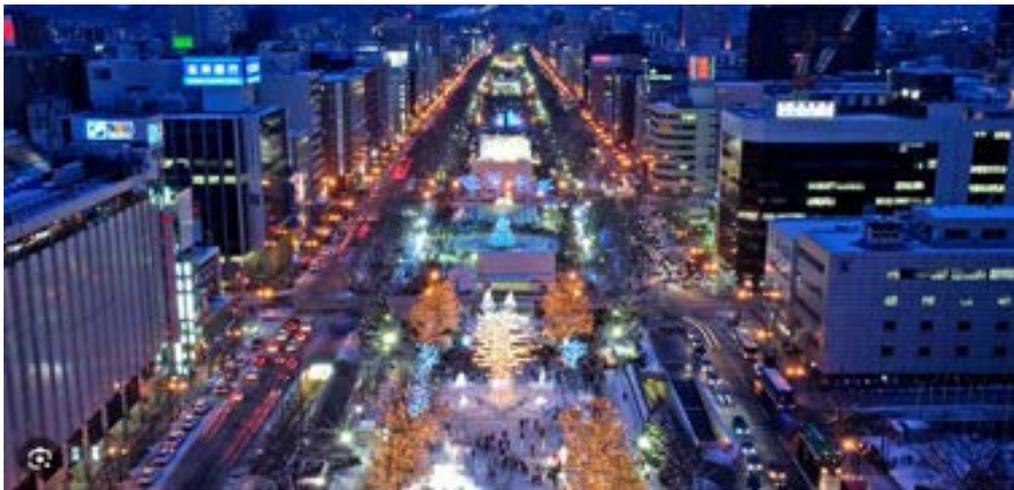


3. 삿포로 눈축제¹²⁾

- 삿포로 눈축제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매년 2월에 개최되는 겨울 축제로, 큰 얼음 조각상과 불빛으로 장식된 공원과 거리를 즐길수 있는 축제임

1) 축제의 배경

-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계속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눈을 축제 소재로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한 이후 2023년 73회차를 맞음
- 1950년 지역 중·고등학생이 오도리 공원에 6개의 작은 설상을 만들어 전시한 것이 시초가 됨
- 당시 내방객수 50,000명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외 약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겨울철 최대 이벤트가 됨.
- 오도리 공원에는 1-12초메 사이의 약 1.5km에 걸쳐 눈과 얼음으로 만든 크고 작은 다양한 조각들이 전시되고 일몰부터 22시까지 조명이 밝혀짐



[삿포로 눈축제 광경]

2) 추진체계 및 주민참여

- 초기 실행위원회는 시 직원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시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삿포로 눈축제 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음

12) 출처 : <https://www.sapporo.travel/ko/>, <https://www.snowfes.com/ko/>

- 8초메의 경우 TV방송사가 관리하며 대형 눈조각 이송은 실행위원회가, 눈조각 제작은 자위대가, 눈 제작 비용은 샛포로 시청이 담당함
- 실행위원회는 시장을 고문으로 참여시키고 관광협회 10여명 포함 200여명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자위대는 195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눈 이송, 눈 제작 및 철거를 위해 대민지원군과 군-민 교류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샛포로 눈꽃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함. 주민들은 축제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함

□ 얼음 조각 대회 참가

- 샛포로 눈꽃축제의 대표적인 행사인 얼음 조각 대회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유명한 조각가들도 참가함. 지역 주민들 역시 얼음 조각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축제를 더욱 화려하게 만듦

□ 눈썰매 타기

- 샛포로 눈꽃축제의 또 다른 인기 행사 중 하나인 눈썰매 타기는 지역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활동임. 눈썰매 대회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함께 즐기는 대표 체험프로그램임

□ 행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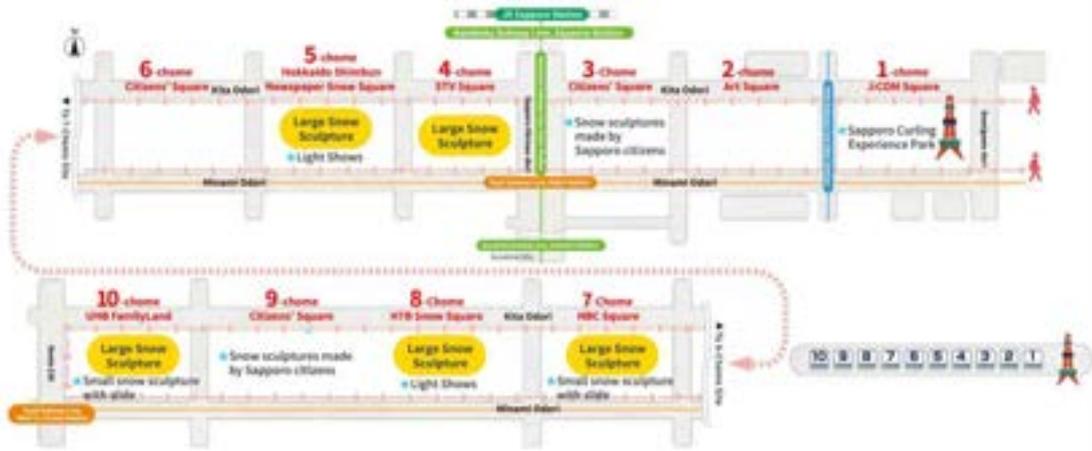
-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를 지원하며,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 예를 들어, 축제장 손님맞이와 안내, 음식 판매, 청소 등의 역할을 맡음

□ 눈꽃조명 등 화려한 장식

- 샛포로 눈꽃축제의 축제장은 수많은 눈꽃 모양의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됨. 이러한 장식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설치함. 주민들은 눈꽃 조명 설치와 관리를 담당함

3) 삿포로 눈축제 프로그램

- 오도리 공원에는 1-12초메 사이의 약 1.5km에 걸쳐 눈과 얼음으로 만든 크고 작은 다양한 조각들이 전시되고 일몰부터 22시까지 조명이 밝혀짐
- 해마다 테마를 달리하면서 각 거리별로 다양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오도리 공원 거리별 눈축제 프로그램]

구 분	테 마	내 용
1초메	J : COM 광장 삿포로 컬링 체험 파크	사단법인 삿포로 컬링협회와 협력으로 '삿포로 컬링 체험파크' 개설 공식 경기에서 사용하는 컬링 스톤을 빙판에서 미끄러뜨리기 체험 제공
2초메	아트광장	'스노우 미쿠(하츠네 미쿠)'는 홋카이도를 응원하는 캐릭터로서 2010년 삿포로 눈축제에서 새하얀 '하츠네 미쿠' 눈조각을 만든 것을 계기로 탄생 스노우 미쿠 의상디자인은 매년 다양한 테마로 온라인 공모로 선정 눈조각 제작 콘테스트와 얼음악기 연주 등 제공
3초메	눈조각 from 혼고 신 기념 삿포로 조각미술관	삿포로 조각미술관에서 삿포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가, 공예가 작품 전시
4초메	STV 광장	백악기의 홋카이도~ 티라노사우루스 & 카무이사우루스~ 7,200만년 전 홋카이도를 상상케 하는 공룡 설상 제작
등		

[오도리 공원 거리별 눈꽃축제 프로그램(2023)]



[눈조각 콘테스트]



[2023 스노우미쿠]



[시민 눈조각 (셋이서 'ONE TEAM')]



[시민 눈조각('ONE TEAM')]

4) 경제적 효과

- 삿포르 눈축제는 코로나 시기에도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삿포르 시제 100주년 기념 제73회 삿포르 눈축제가 2023. 2.4 ~ 2.11까지 8일간 개최되었음
- 2019년 제70회 축제에는 19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150만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문객 집계는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행사장의 특성상 정확히 집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호텔 대상 외국인 방문객 조사표를 배포하여 방문객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중 투숙객은 전부 눈축제 방문객으로 간주하고 있음

- 코로나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2023년에는 다시 175만명으로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구 분	제 70 회 2019	제 71 회 2020	제 73 회 2023	71회차 대비
오도리행사장	1,934,000	1,575,000	1,750,000	111.1%
스스키노행사장	803,000	446,000	-	-
합계	2,737,000	2,021,000	1,750,000	111.1%

[삿포로 눈축제 성과]

- 이 기간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숙박, 식사, 교통 등 관련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특히 축제 기간 중에는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등이 축제 관련 상품과 메뉴를 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내 호텔 등 숙박시설의 예약률도 높아지는 등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경제적 규모는 매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9년에는 2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약 365억엔(한화 약 4조 6천억원) 이상이었다고 보도되었음.
- 삿포로 축제는 지역내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축제를 통해 유치된 관광객이 인근 지역을 방문하거나 재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광수요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음.

5) 제주 축제에의 시사점

- 73년이라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축제로서 중·고등학생의 설상 제작 등 주민의 자발적 놀이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음.
- 주민 스스로 즐기는 축제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축제장 조성, 축제 프로그램 참여, 안내 등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 즉 주민이 준비하고 주민이 즐기는 축제임.

- 제주의 축제 역시 준비하는 과정과 그 기간 자체가 축제가 되고 스스로 즐겁게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실행위원회는 민간 주도 샛포로 눈축제 협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 샛포로 시(예산), 자위대(설상 이송 및 철거) 등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음. 제주의 축제 지원체계와 추진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민관협력형 축제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주의 눈축제와 같이 샛포로 눈축제 역시 눈이 많은 기후환경에도 불구하고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깨끗한 눈 확보에 예산투입이 증가하고 있음. 기후적으로 특화된 지역에서도 눈축제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제주의 겨울은 상대적으로 온난하여 과거 눈꽃축제가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음.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아닌 자연, 기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축제기획이 요구됨

VI. 종합의견

- 제주가 자연환경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북해도의 온천, 산맥, 해안, 기후, 풍경 등을 접해본 결과, 북해도가 훨씬 많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고, 이 자원들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경쟁력 있게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느낌
 - 제주 관광산업은 제주의 풍광을 이용한 자연경관 중심의 마케팅이 그동안 대세였으나,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중심의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됨. 제주만의 민속문화의 관광자원화도 필요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세계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민간기업, 제주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단을 구성하여, 세계 연수를 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음

- 다양한 소재의 식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느낌. 북해도는 낙농업의 유제품을 이용하여 북해도만의 과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 유명하고, 북해도의 농산품을 이용한 식품산업도 매우 발달함. 제주와 마찬가지로 말 오일이 유명함.
 - 제주에서도 발작물을 이용한 2차 가공식품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각 발작물의 생산지에서 2차 가공식품을 만들어 제주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음. 단, 이전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청년 스타트업을 이용하여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성을 갖을 필요가 있음

- 북해도에서 생산되는 발작물들은 ‘청정’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일본 전국의 백화점에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주의 발작물들은 유통체계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가격을 받고 있음
 - 무릉 외갓집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산업이 성공하였으나, 중간수집상-도매상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함.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한편, 소비자도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품질의 제주 발작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IT 플랫폼을 이용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이 민간에서 개발되어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북해도는 인근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인접해 있으나, 지정학적 요충지나 거점이 되기에는 부족함. 제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전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음.
 - 제주지역에 방문한 동남아 관광객들이 홋카이도로 연계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제주와 홋카이도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제주 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운항중인 인천-삿포로 행 노선의 일부를 제주로 분할하여, 제주-삿포로 직항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북해도의 온천은 매우 인상 깊었고, 대규모의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자원이 됨
 - 제주도의 경우, 온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온도가 낮아 개발을 하지 못하였음. 구좌읍에 위치한 용암해수단지에서, 염지하수를 추출하고 있는데, 염지하수를 하나의 자원으로 리조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홋카이도 대학은 일본내에서도 유명한 대학으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3년에 선정되어 추진 예정인 RIS 사업을 기회로, 제주대학교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학과 뿐만 아니라, 전교직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RIS 사업 대상학과가 아닌 경우 더라도, 지자체 예산 또는 대학교 자체 예산을 배정하여, RIS 사업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해도의 산업구조를 참고하여 제주의 산업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북해도는 제주와 달리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이미 발전되어 있음을 확인함. 말레이시아 페낭의 경우, 관광산업 외에도 IBM 공장이 위치하여 관련 산업 생산액보다 IT산업의 생산액이 더 많았음.
 - 제주도의 경우에도, 관광산업 외에 제조업 기반 산업이 있어야 경제구조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단, 제주에 맞는 제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